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과 향후 실천 과제

김다원*

요약

본 연구는 2023년 11월 유네스코 제42차 총회에서 개정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개정 권고에서는 새롭게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였다. 유엔과 유네스코에서는 1992년 리우 선언 발표, 2004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추진,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더’에서 글로벌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여 전 세계에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그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최근의 글로벌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분쟁과 갈등, 심화되는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평화와 지구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격, 목표, 방법을 분석적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 권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veritas2@gnue.ac.kr

I.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교육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이하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로 칭함)(UNESCO, 1974)가 지난 11월에 열린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이하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로 칭함)(UNESCO, 2023)로 개정됐다. 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UN 헌장> 정신과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하여 전문과 10장, 45항으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유네스코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를 토대로 개정되었다. ‘글로벌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 특히 교육에 관한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의 요구사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 글로벌 평화, 국제이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착수되었다’는 개정 배경을 제시하였다(UNESCO, 2023).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정학적 갈등,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화로운 지구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적극적인 교육의 역할과 지구적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증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순원, 2023).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회의에서 발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과 ‘의제 21’에서 특별히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UN, 1992a, 1992b).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 ‘교육 2030’(UNESCO, 2015a)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절실함을 표명해 왔다.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지구적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세계로 궁극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범교과 학습주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학습 주제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생태환경 변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 제시하였으며, 기후·생태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배려, 존중, 협력의 능력을 키우고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의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자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와 평가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자율화 및 분권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핵심 역량과 비교해서 ‘자기 주도성’, ‘다양성 이해와 존중’, ‘상호 협력과 소통’,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 ‘책임감 있는 참여’ 내용을 포함하여 변혁적 교육을 강조하며(교육부, 2022a),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민의 능동적 참여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인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에서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로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명칭에 포함하였다. 2023년 개정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권고 개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실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실천적 과제를 찾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는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의 제목하에 I. 용어의 의미, II. 목적, III. 적용 범위, IV. 기본 원칙, V. 행동 영역 (법령/정책 및 전략/거버넌스, 책임성 및 파트너십/교육과정과 페다고 지/진단 및 평가/학습 및 수업자료, 자원/학습환경/교사 및 교육 인력 육성/영유아 보육 및 교육/초등 및 중등 교육/고등 교육 및 연구/ 직업 기술 교육, 훈련/ 성인 교육/ 비형식 교육 및 무형식 학습), VI. 후

속 활동 및 점검, VII. 장려 및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내용에 의하면,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동일 수준의 가치이며 이에 대해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책임감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각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성격, 목표, 교육에의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성격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개정 권고의 ‘I. 정의’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 중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변혁적 교육’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았다 (<표 1>). 개정 권고에서 ‘교육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이 지역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와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과 생태계를 위해서 자신의 인격, 존엄성, 재능과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키우는 평생의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생태계’, ‘지역사회 공동체’, ‘세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생태계’와 ‘지역사회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위한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평생의 과정’으로서 교육 등이 1974 권고 당시의 내용에 비해 강조된 부분이다(UNESCO, 1974; UNESCO, 2023). 인간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지향점에 지역사회 및 세계 공동체와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연결짓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상에서도 1974에서는 ‘능력, 태도, 적성, 지식 전반(capacities, attitudes, aptitudes and knowledge)의 개발’로 제시한 반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인격, 존엄성, 재능, 정신적·육체적 능력**(personality, sense of dign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의 함양’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 재능을 키우고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는 본 개정 권고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체와 생태계의 일부로서 학습자 자신의 위치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자 자신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 역할력 함양의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또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용어를 ‘학습자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온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로 제시하였다. 이는 UNESCO(2014)에서 <UN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년(2005~2014)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며,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 이외에 책임있는 행동력 함양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변혁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권고에서는 ‘변혁적 교육’을 본 개정 권고의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존엄성과 다양성 인정 및 가치 부여**,

‘변화의 주체로서 그리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포용적이고, 평등적이고, 공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개인,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개정 권고의 서문에서는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은 ‘변혁적 교육’을 대원칙으로 하며 그 핵심은 변화를 위한 이해, 판단, 실천력의 함양에 두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교육 환경에서는 개인-사회-세계 간 긴밀한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형성, 주제 통합과 포용적 참여에 기반한 학습, 전학교적 접근과 평생교육적 접근 등이 변혁적 학습을 용이하게 함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변혁적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 자신의 온전한 성장, 주체적 역할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성의 적극적 실천력이 나타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여 본 개정 권고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1974 권고에서 ‘개인적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교육관이 배제되었던 것에 비하면(강순원, 2000), 교육의 변혁적 성격을 강조했다고 하겠다.

기존 1974 권고의 교육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인권으로서 교육, 평생 과정으로서 교육, 공동체와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 세계시민성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변혁적 교육 등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 그리고 권고 개정의 배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1>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변혁적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1974 권고 내용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 내용
<p>(가) ‘교육’이란 그것을 통해 개인과 사회 집단이 국내 및 국제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위해 자기의 개인적 능력, 태도, 적성 및 지식 전반을 의식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든 사회 생활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어떤 특정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p>	<p>(a) “교육”은 양도 불가능한 인권이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지방, 국가, 지역 및 글로벌 공동체 그리고 에코시스템 내에서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인격, 존엄성,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학습하고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평생 과정이다.</p> <p>(b)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2030 실행계획’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습자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온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p> <p>(c) “변혁적 교육”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인정 및 중시하고, 이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평화, 정의, 포용성, 평등, 공평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이 구현되는 사회의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인, 지역사회, 지방,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이들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의 행위주체로 미래의 주역이 되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교육 및 학습(특히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인권교육과 같은 접근법 등을 통한)이 수반된다.</p>

출처: UNESCO, 1974, 2; 2023, 4-5.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면

다음에서는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교육의 목표 내용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를 살펴본다. 본 개정 권고에서는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더 적극적 교육의 실천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권고에 제시된 주된 교육 목표는 ‘인권,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평화의 증진, 국제이해와 협력, 빈곤 퇴치, 관용을 촉진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경제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의 개인 및 집단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사회적·정서적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력을 갖추게 한다’에 두었다. 인류의 평화적 삶과 온전한 지구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74 권고에서 개인, 사회 집단, 민족, 국가 간 ‘공존적 관점’(강순원, 2000: 66)을 넘어서 공존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관점과 적극적 실천’으로 확대하면서 참여적, 변혁적 관점의 지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 구현을 위해서 교육은 변혁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관련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행동력 함양을 제시하였다(<표 2>). 즉, 분석적·비판적 사고, 예측 기술, 다양성 존중, 자기인식, 인류 공동체 및 지구환경에의 연결감과 소속감, 주체성 강화, 의사결정 기술, 협업기술, 창의적 기술, 갈등 해결력,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개정 권고에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간의 UNESCO에서

<표 2> 교육 목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2 사회과 교육과정
II. 목적		
<p>3. 여기에는 교육을 통해 인권,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진 생애에 걸쳐 모든 사람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 참여, 경제적 역량 강화,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국제이해, 협력, 빈곤 퇴치 및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적·집단적 행동 등에 필요한 지식, 기술(사회정서적 기술 포함), 가치, 태도 및 행동을 갖추 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p> <p>6. 특히 교육은 변혁적이어야 하며, 문해력과 수리력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다음과 같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a) 분석적·비판적 사고</p> <p>(b) 예측 기술</p> <p>(c) 다양성 존중</p> <p>(d) 자기인식</p> <p>(e) 다양한 인류의 지구 행성에의 연결감과 소속감</p> <p>(f) 역량 강화, 행위 주체성 및 회복탄력성</p> <p>(g) 의사결정 기술</p> <p>(h) 협업 기술</p> <p>(i) 적용적·창의적 기술</p> <p>(j) 시민성 기술</p> <p>(k) 평화적 갈등 해결 및 변혁적 기술</p> <p>(l) 미디어 및 정보 문해력, 의사소통 및 디지털 기술</p>	<p>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p> <p>가. 자기관리 역량</p> <p>나. 지식정보처리 역량</p> <p>다. 창의적 사고 역량</p> <p>라. 심미적 감성 역량</p> <p>마. 협력적 소통 역량</p> <p>바. 공동체 역량</p>	<p>1. 성격 및 목표</p> <p>가.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 창의적 사고력 •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 의사소통력 및 협업력 • 정보활용능력

출처: UNESCO, 2023, 5-6; 교육부, 2022a, 2022b.

제시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량 목표에 해당하며 (UNESCO, 2015b, 2017), 앞의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개정 권고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응 능력, 개인-사회-세계-생태환경 간의 밀접한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비판적 인식과 변화를 위한 실천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의 제시는 정보화에 따른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의 함양과 이를 통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력과 의사결정력 함양을 강조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도구가 되고 있다(UNESCO, 2022).

또한, 이러한 목표들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2022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많은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다(교육부, 2022a, 2022b)(표 2). 이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히, 사회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준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법 면

다음에서는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IV. 기본 원칙, V. 실천 분야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의 접근 방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정 권고에서는 변혁적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원칙을 따르도록 제시하였다(<표 3>). 교육의 공공재

<표 3> 교육의 기본 원칙

1974 권고의 III. 기본 원칙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IV. 기본 원칙
<p>4. 모든 사람이 위 3항에 언급된 목적 달성에 능동적으로 기여케 하고, 개인 및 지역 사회 생활과 기본 권리 및 자유 행사에 영향을 주는 세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면 다음 목표를 교육 정책의 주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p> <p>(가) 모든 수준 및 모든 형식의 교육에 국제 차원과 세계적 시각에서 접근;</p> <p>(나) 국내 민족 문화와 타민족 문화를 포함한 모든 민족,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p> <p>(다) 민족간, 그리고 국가간 범 지구적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p> <p>(라) 타인과 의사 소통 능력;</p> <p>(마) 개인, 사회 집단 및 국가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자각;</p> <p>(바) 국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p> <p>(사) 사회, 국가 및 세계 전체 문제 해결에 자발적 참여;</p>	<p>8. 본 권고의 목적을 지향하는 교육은 변혁적인 교육이자 양질의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p> <p>(a) 양질의 교육은 공동체이자 공동체에 해당하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한다.</p> <p>(b) 이웃의식 및 소속감을 함양하여 배려와 연대의 윤리를 고취함으로써 친화적 관계, 이웃의식 및 소속감을 촉진시킨다.</p> <p>(c) 교육과 학습을 평생에 걸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총체적, 인본주의적 및 변혁적 과정으로 인식한다.</p> <p>(d) 투의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지역사회, 지역, 국가, 권역 및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지원하는 한편, 개인이 그러한 참여 역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p> <p>(l) 지역과 세계의 상호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서 국제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p> <p>(m) 협력과 연대를 위한 문화 간,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고, 민족, 사회, 국가 간 우호적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한다.</p> <p>(n) 개인, 공동체, 사회, 국가,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평화, 인권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세계시민성 및 책임 공유의 윤리를 함양시킨다.</p>

출처: UNESCO, 1974, 2023, 7-8.

(public goods)와 공동재(commom goods)로서 가치, 배려와 연대의 윤리,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지역과 세계 간의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의 공공재와 공동재로서의 가치 부여는 기존의 1974 권고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며, 최근 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구자들은 교육을 공동재로 볼 것을 제안한다(UNESCO, 2015c). 즉, 지식의 창출, 습득, 검증, 활용은 사회 공동의 행동 일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진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UNESCO, 2015c, 2021). 점점 더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지식과 교육을 공공재이자 공동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1974 권고에서 제시했던 국제 차원, 타민족 문화 이해, 민족 간 및 국가 간 상호 의존, 국제 연대 및 국제 협력 등의 용어 대신에 지역과 세계 간 연계, 현재와 미래 간 연계, 이웃 간, 세대 간 우호 관계, 개인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 지구 경계들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 등의 명시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과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면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표 3>). 즉 지역시민, 국가시민, 세계시민, 민주시민, 생태시민을 아우르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개정 권고에서는 ‘V. 실천 분야’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책과 제도 및 전략,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교육과정과 페다고지, 학습 환경, 교사 및 교육 인력 육

<표 4> 교육 활동 영역의 내용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V. 교육 활동 영역 내용	
정책 및 전략	<p>10. 회원국과 모든 이해당사자는 교육개 지도자, 교육기관 및 교사와 교수요원들이 범사회적 접근법을 통해 교육에서 상거 기본 원칙을 주류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p> <p>(c) 학습자가 책임감 있는 지역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진 생애에 걸쳐 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학습 경로(형식학습 및 비형식학습)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교육 이수에 따른 자격 및 과정에 습득한 형식·비형식 학습 이력의 조국경제 체제, 인성, 검증 및 인증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p> <p>22. 교육에 대한 변형적 접근법은 커리큘럼, 또는 학습 영역 및 모든 수준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과목 및 학습 영역과 다양한 맥락에 대한 해당 교과목 및 학습 영역의 시의적절한 상호 작용을 탐구하기 위한 총체적, 다학제적, 학제적 및 초학제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된다.</p> <p>...</p> <p>29. 디지털 역량은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참여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장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공학에 대한 접근성은 학습 성과 개선, 학습자 간 협력과 참여의 촉진 및 보다 역동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 정보 문해력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사이버폭력, 혐오발언, 괴롭힘, 사이버 사기,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다.</p> <p>30.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후변화교육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이해 및 해결하고 기후행동을 증진하며 학습자가 변화의 행위주체로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춘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커리큘럼 및 제반 교과목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경험적, 맥락화된, 해결기반의, 행동 지향적 구성이어야 한다. 교육 제공자는 기후행동에 대한 진(眞) 기반 접근을 채택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p>
진단 및 평가	<p>31. 모든 학습자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정·평가 및 증거 기반 방법은 협력, 협력 및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지식적이고 진인적인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 정책 입안자, 교육개 지도자, 교수요원은 사정·평가가 문화적 편견이나 기타 편견 없이 진적으로 학습자와 학습 과정을 위해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사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p> <p>34. 모든 학습 환경에서의 수행평가는 타당성,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 및 포용성이 보장되고 교육 수준과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본 권고에 따라 인지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정서능력, 정신운동 역량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지식도 다루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 및 지식에는 본 권고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평가 및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p>
학습 및 수업 자료 및 자원	<p>35. 회원국은 모든 교사와 학습자가 본 권고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 반영된 양질의 학습·교수 자료 및 자원(멀티미디어 콘텐츠 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리적 및 디지털 형식으로 된 그러한 자료의 접근은 공개교육자원(OER)의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또한 교육 및 평생학습 전반에 걸쳐 본 권고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및 지침(인적자원 및 교육훈련 포함)을 제공하는 물리적 및 또는 디지털 자료 센터의 설립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p>

출처: UNESCO, 2023, 8-13.

성,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표 4>). 교육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전략 수립과 실행, 교육을 위한 협업적 거버넌스 구축 및 파트너십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여 본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교육의 적극적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페다고지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성 있는 전체적 교육과정 마련,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이슈, 교과목과 연계하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지원, 모든 학습자, 교사, 교육 관계자, 교육 공동체에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디지털 역량 함양을 통해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학습 과정에서 협력과 참여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일부로 기후변화 교육을 명시하여 기후 정의를 촉진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학습자 중심, 경험적, 상황적, 해결 기반의 행동 지향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로컬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를 로컬의 문화적, 환경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지역사회 문화에 기반한 소속감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성은 그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수준과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마련, 학교 학생 학습자를 포함한 학교 안팎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의 확대, 디지털 활용 교육과정 마련 등은 현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면에서 볼 때,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개정 권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으로 진단 및 평가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발전과 자신들의 안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모든 학습자가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과정 평가의 포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가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22a).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 교육의 실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개정 권고에서는 권고에서 제시한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균형잡힌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연계하여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균형잡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과 학습자의 역량 함양에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그간 교과 연계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과 목표에 기반한 평가 중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에 기반한 평가 실시 필요성 면에서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 및 수업 지원 자료 및 학습 환경 구성에서는 모든 교육 관계자 및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 개방하여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과 이의 적절한 활용

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회원국들 간 최신의 디지털 자원 생산, 사용, 보급과 공유를 활성화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이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 간 학습 뿐 아니라 세대 간 학습의 촉진과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디지털 도구 활용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 글로벌 차원에서 복잡한 현상과 문제를 객관적, 관계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스템 역량, 예측 역량, 전략 역량,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함양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여섯째, V장 42항의 교사 교육 및 교육 인력의 양성 면에서는 교사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이들의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모든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사 교육의 필요성은 늘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의 ‘변혁적 교육’의 실행 요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육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세계의 도전 과제들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교과 연계, 비 교과 시간 활용, 전학교적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사 이외의 학교 밖 강사 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밖에서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하거나 학교 밖의 시민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V장 59항의 기술 및 직업교육에서는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노동 시장 지향의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과 부의 분

배, 사회 집단 간 연대, 세대 간 연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개인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생활을 위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금융, 법률 및 정치 업무에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여덟째, V장 62항의 성인 학습과 교육에서는 평생 학습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지식, 태도, 보편적 가치, 기술 및 행동을 갖추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누리고, 건강과 웰빙, 문화, 정신과 경제 및 시민적 참여, 환경적 책무, 지속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존엄성에 기여하는 모든 다른 방식으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권고의 목적을 지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홉째, V장 63항의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제하며 모든 형식의 교육, 비형식의 교육, 그리고 무형식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나아가서 민간 부문의 실천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도자, 가족 등도 포함된다. 학교 교육과 학교 밖의 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학교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뿐 아니라 학교 밖 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면에서 중요성이 보다 크다고 하겠다.

Ⅲ.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논의 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는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접근 방법, 평가 등 교육 전반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였다. 개정 권고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내용과 SDGs의 제 영역을 토대로 평화와 인권 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GCED)과 연계하여 한국의 이행 수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권고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격, 내용, 방법은 이전에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교육 2030’(2015a),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2017),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로드맵’(2020)에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UNESCO(2005)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환경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빈곤 및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실현 등을 토대로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환경적 보호를 실천하여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관련하여, 개정 권고의 제목 ‘평화와 인권, 국제이

해, 협력, 기본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세계시민교육 등과 어떻게 연계하여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 권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과 통합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행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및 통합은 학교급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 직업기술교육 훈련, 고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 교육과정에 통합을 말한다. 단순한 추가보다는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 요소로 위치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한국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 '생태 환경' 관련 내용을 교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의 학년별 2개의 선택 교과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변혁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적극적으로 연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극적,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 권고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교 안과 밖에서 형식, 비형식 그리고 무형식 교육으로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교 밖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업적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실행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이러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성과 지역성을 지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공생적 관계 형성, 학교와 학교 밖 사회환경 간의 유기적 연계 형성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밖은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환경의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UNESCO(2015a)에서는 ‘ESD for 2030’에서 학습 환경의 변혁적 실행에서 가치있는 환경으로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지도자, 주민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에 의한 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김다원·류시현, 2023)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서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여러 학습 자원의 활용, 학습자의 장래 직업 체험 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rgan(2012)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공정한 지속가능성(Just Sustainability)’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교육은 인권이며 평생 과정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 인격, 존엄성, 재능,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명시하였다. 더불어서 교육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상황과 형식, 비형식, 무형식 환경에서 이뤄지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른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한 모든 수준, 모든 유형으로 이뤄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주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 왔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학교 밖의 현장으로 확장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시민의식이 학교 밖에서 계속적으로 실천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환경이 교육적 환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 대상 교육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키워진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학교 밖 시민들의 시민의식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간 학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밖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에 대한 인식과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의 실천이 필요하다. 개정 권고에서는 기존의 1974 권고에서 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모

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교육에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식, 교육과정 및 수업 실천, 평가 등 개요적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환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요적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 연계 교육 및 통합 주제 중심의 교육의 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과별 학습 영역의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과 영역에 따라서 인지적 학습, 사회정서적 학습, 행동적 학습의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학습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UNESCO, 2019).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교과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였다(조대훈 외, 2018). 연구에 의하며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로 알려진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특정 교과 활동으로 간주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전학교적 접근’, ‘총체적 학습’, ‘변혁적 학습’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수업에서 융합적 접근의 실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기후환경에 집중하는 양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환경 교육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에의 대응 이외의 빈곤, 식량안보, 성평등, 불평등 심화, 평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들에 대한 전체적 인식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들 간의 상호

연계성 파악을 위한 교육의 상대적 빈약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주제로 하여 다른 SDGs을 연계하여 교육하거나 SDGs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교육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참여적, 경험적 학습에 기초하여 학습자 자신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탐구와 참여에 강조점을 둔다.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의 교육에의 접근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상호 연계성 인식, 지식과 정보에의 효과적 접근, 사실에 기반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학습자가 제한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서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세계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글로벌 시각을 갖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역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교육이다.

관련하여 1974 국제이해교육 개정 권고에서는 포용, 존중, 기술, 시각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은 일상생활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사고와 실천력을 키우는 데 유의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신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 문화적 이해 등의 지식과 비판적·분석적 사고, 윤리적 숙고, 환경적 감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Young(2008)은 지식이 없는 곳에 교육은 없으며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안적 미래를 생각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데이비드 히스는 ‘글로벌 교육은 머리와 가슴 모두를 포

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icks, 2007).

또한, 글로벌 교육은 학습자에게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술'의 범주를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사고의 과정은 사고의 내용과 얽혀 있다(Willingham, 2007). 그리고 가장 좋은 기술은 그 기술이 개발되는 지식의 영역에 특화된 것이다(Standish, 2015). 본 개정 권고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토대로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의 글로벌 기술과 글로벌 윤리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세계에 대한 이해, SDGs에 대한 비판적, 맥락적 이해,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전제로 하여 학습 주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관련 기술 및 윤리의식을 깊게 다져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초·중등·청년·성인 단계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초·중등·청년·성인 단계의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학습 반영에서 초등, 중등, 청년, 성인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학습의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와 공유가 필요하다. UNESCO(2015b)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증진에서는 서로 연결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총체적 접근과 이를 통한 변혁적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UNESCO(2019)의 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수직적으로는 모든 교육 단계에서, 수평적으로는 각 단계별 관련 교과 영역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간에 균형잡힌 교육이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UNESCO(2019)의 세계 여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를 보면, 유치원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정서적 영역의 감소 및 인지적 영역의 증가 현상, 특히 사회·정서적 영역에 가장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교육에서 인지적 영역의 교육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교육이 함께 행해져서 변혁적 교육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일곱째, 초·중등, 청년, 성인 단계별 교육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과 평가 실행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서는 환경교육을 포함하여 범교과 학습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행의 비율은 높지 않다. 유네스코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포함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결과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9.9%, 중학교 48.8%, 고등학교 59.9%를,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0.3%, 중학교 32.7%, 고등학교 19.7%를 보였다(조대훈 외, 2018). 이러한 평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자체의 실행 효과성 분석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개정 권고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의 정도를 살펴보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교사 및 교육 인력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융합적 성격의 교육이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른 변동성, 지역성,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별 교사에게는 이에 걸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수 역량 함양 즉,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관심과 이해, 변혁적 행동 동기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부여, 헌신 등) 함양과 수업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밖 시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민 강사 교육도 필요하다. 그간 대부분의 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주로 교사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민 교육, 지역사회 연계 학교 교육 등이 사회적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학교 밖 시민 강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개정 권고의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 자유, 세계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절실하게 요청되는 교육이다. 그런 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한정되기 보다는 평생교육적 과

제이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적 시각과 감수성 그리고 생태시민적 실천력을 키워줄 수 있는 변혁적 교육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이미 1974년 국제이해 권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한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한국의 교육과정도 변화와 진전을 이뤄오고 있다. 이미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범교과학습 주제에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였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부, 2015, 2022a),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에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5,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생태환경 변화’,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사람 양성’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a).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응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체, 주민들의 참여 제고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 식량 안보의 위협성 증가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

가,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의 대응, 빈곤,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촌락과 도시, 성차별, 생태계 보전, 인권과 평화 등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목소리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우리 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맞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평화, 인권, 국제이해, 세계시민교육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 성인 교육의 단계적 교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교과 간 융합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학교 형식 교육 이외의 비형식, 무형식 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권, 나아가서 세계의 교육과 연계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교사 이외 학교 밖 교육자 양성과 교육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2000). 국제이해교육의 현재적 시점. **국제이해교육**, 창간호, 57-84.
- 강순원(2023). 국제 전문가 그룹의 주요 활동 및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 **유네스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 개정안 검토 포럼 자료집**, 16-25.
- 강순원, 이경한, 김다원(2019). **국제이해교육 페다고지**. 살림터.
- 교육부(2015).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22a). 2022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22b). 2022 개정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김다원, 류시현(2023). 지역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방향 연구: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62(3), 83-104.
- 조대훈, 김다원, 이정우, 이지향, 문무경, 이수정(2018).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 연구보고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Hicks, D.(2007). Principles and Precedents, in D. Hicks and C. Holden(eds.), *Teaching the Global Dimension*, London: Routledge, 14-30.
- Morgan, A.(2012). Inclusive place-based education for ‘Just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6(5-6), 627-642.
- Standish, A.(2012). *The False Promise of Global Learning*. London: Continuum(김다원 역(2018). **글로벌학습의 잘못된 약속**. 살림터).
- UN(1992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1992b). *AGENDA 21*.
-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ESCO(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UNESCO(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 UNESCO(2014). *Shaping the Future We Want-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5-2014) FINAL REPORT*.
- UNESCO(2015a). *Education 2030-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 UNESCO(2015b).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기획번역(2015).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
- UNESCO(2015c).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유네스코&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번역(2018). **다시 생각하는 교육**).
- UNESCO(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ectives*(유네스코한국위원회 번역(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학습목표**).

- UNESCO(2019). *Education content up close-Examining the learning dimension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UNESCO(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oad Map.*
-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 UNESCO(2022).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Competencies for Civil Servants.*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ESCO(2023).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Willingham, D.(2007). Critical Thinking: Way is ti So Hard to Teach?. *American Educator*, Summer, 8-19.
- Young, M.(2008). *Bringing Knowledge Back In: From Social Constructivism to Social Realism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Abstract

**Contents and tasks of ESD in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im Da-Won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ntents and task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nted in the ‘1974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42nd General Assembly of UNESCO in November 2023. In this revised recommend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as actively included. UN and UNESCO announced the Rio Declaration in 1992, promoted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 2004, and presen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global task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5. Therefore, we have requested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ESD around the world. In this trend, the 1974 revised recommendation reflects the current trend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solving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isputes and conflicts, and deepening inequality that are emerging in recent global society, and maintaining human peace and the global ecosystem. It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what ESD is necessary for.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goals, and methods of ESD presented in the 1974 revised recommendations from an analytical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looked for the tasks and directions to be solved in Korea's ESD in the future.

Key words :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투고신청일: 2024. 07. 10

심사수정일: 2024. 08. 05

게재확정일: 2024. 08. 07.